

제4과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말씀 묵상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골로새교회에 편지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단들의 발호와 세상 가치들의 침범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강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적 승리를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림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 () 당하는 고난

지난 과에서 우리는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의 교회론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며, 성도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식에서 ‘다양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 됨’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신앙고백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 자세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24)

1) 지체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_____)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괴롭힘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괴로움이 ‘지체’를 위한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에서 지체의식에 기인한 교회론의 마지막은 ‘지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존재라는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들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피 값’입니다. 그러기에 지체를 위하는 것은 곧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24-26)

→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뱌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1-6)

우선 뵈뵈 자매는 당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뵈뵈 자매가 치렀을 고난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죽음을 불사하고 지체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지체들을 위해 수고한 마리아’입니다.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난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다른 지체를 위해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_____)

바울의 고백에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24)

→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내가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29)

→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17)

→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마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양 행동합니다. 고난을 철저하게 피해가고, 영광만 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현실이고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써,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라면,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하는 일은 꺼려합니다.’ 몸이 우상이 되어 몸으로 섬기는 일에는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 기꺼이 몸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 예수 그리스도

1) ()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27)

바울은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2-3)

그럼 비밀(뮈스테리온)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비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비밀인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25-27)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기 전까지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림자인 구약을 통해 몸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17)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비밀을 맡은 자’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1)

2) 지혜와 지식의 (_____)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고, 그 비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를 이단의 괴수 정도로 알았기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13)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7-9)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 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2)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설물일 뿐입니다. 배설물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인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3) ()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울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28-29)

→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바울의 힘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① 복음: ()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9)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29-30)

→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② 온전하게 하시는 ()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함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4-5)

율법의 요구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1-4)

→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13-14)

→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26-27)

그러므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 즉 성화를 이루는 삶은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